입법평가연구 제14호 2018년 10월 pp. 183~218

유럽의회조사처의 최초 4년간의 업무(2014-2017)*

이 상 현**

Contents

Ⅰ. 개요
Ⅱ. 유럽의회조사처의 창설, 역할, 그리고 철학
Ⅲ.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업무
1. 정책 전문성 2. 개별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
3. 의원들을 위한 간행물 4. 기타 혁신적 생산물과 서비스
Ⅳ. 도서관의 업무
1.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 2. 비교법도서관
3. 역사기록보존소 4. 대민회답과
Ⅴ.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실의 업무
1. 사전영향평가 2. 사후영향평가
3. 유럽연합이사회에 대한 조사 4. 예측
Ⅵ. 유럽의회조사처의 광범위한 서비스
1. 의원핫라인 2. 클라이언트 니즈
3. 전자플랫폼의 현재 4. 수평적 지원 - 자원, 전략 및 협력

* 이 글은 유럽의회조사처가 2018년 6월에 발간한 'The work of EPRS – The first four years: 2014 to 2017'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입법평가연구팀 연구원

Ⅰ. 개 요

유럽의회의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는 2013년 11월 유럽의회 의원 및 해당 의회 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정책이슈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회업무를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모든 정책분야의 전문가 내부 전문지식과 지식출처의 지원을 받는 포괄적인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식을 통해 의원과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기구로서의 효과와 영향력에 기여한다.

2014년 1월부터 유럽의회조사처는 약 91%의 개별의원들로부터 11,400건 이상의 실질적 연구 및 분석요청에 응답했으며, 다른 의회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2,100건 이상 응답하였고, 17건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회조사처는 또한 의회 내에서 78,000건 이상의 참조 요청과 23만 건 이상의 시민 문의에 응답했다. 지금까지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2,700건 이상과 온라인상으로만 약 1,000건으로 3,700건 이상의 간행물을 생산했고, 매년 의회 내 커뮤니티의 약 9,000건의 개별적 사용자들과 매월 2,300건 이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1,800,000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끌어 모았다.

이 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유럽의회조사처의 첫 4년 동안의 유럽의회조사처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의 일정을 강조해서 기술한다.

이 48개월 동안:

-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은 몇몇 경우에 다른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아 유럽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진들로부터 조사 분석을 위한 총 11,430건의 실질적이고 비밀스러운 요청에 응답하였다. (2014년 1,660건; 2015년 2,995건; 2016년 3,441건; 2017년 3,334건)
- 위원회 비서, 정책부서 및 정치단체 등 기타 의회 의뢰인으로부터 조사 분석을 위한 2,131건의 요청에 답했다. (2014년 720건; 2015년 497건; 2016년 437건; 2017년 477건)
- 의원연구서비스실을 이용하는 의원들의 수는 그 기간 내내 증가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연구나 분석을 요청한 의원들의 91%는 조사 또는 분석을

요청했고, 이전 20개월 동안에는 78%가 요청했다. 비교하면 2014년 가을에는 단지 22%의 요청이 있었다.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해당 4년 동안 EU의 정책, 문제 및 입법에 관한 2,253건의 간행물을 발행하였다. (2014년 232건; 2015년 594건; 2016년 750건; 2017년 677건)
- 같은 4년의 기간 동안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부서는 임원진의 회계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와 감독을 하는 의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심화 보고서 473건(2017년 154건)을 출판했다.
- 또한,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도서관부서는 의회 내로부터의 78,465건의 참조요청에 응답했고, 230,000건 이상의 시민질의를 다뤘다.
- 도서관부서는 49,000건 이상의 도서와 전자책을 의회 클라인언트에게 대여했고, 3,500명 이상의 개인에게 관내 교육을 제공했다.
- 도서관부서는 2,700건 이상의 요청에 대응하여 유럽의회연혁에 관한 25,000건 이상의 문서들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했고, 이 4년 동안 1.5킬로미터 이상의 자료들을 처리했다.
- 도서관 간행물과 블로그 기사들에 더불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총 3,375건의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이 있었다(2014년 569건; 2015년 995건; 2016년 1,154건; 2017년 1,057건). 모든 간행물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카탈로그[1]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접근할 수 있다.
- 이러한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과 기타 자료들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의회 인트라넷에서 640만 건 이상의 페이지뷰를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약 530만 건의 페이지뷰를 도출했다. 해마다 인트라넷의 조회수는 2014년 140만 건, 2015년 190만 건, 2016년 160만 건, 2017년 160만 건을 기록했다. 인터넷에서는 2014년 70만 건, 2015년 130만 건, 2016년 150만 건, 2017년 180만 건을 기록했다.
- 4년 동안 구성원들과 그 보좌진들의 99%가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들과 정보 또는 의회인트라넷의 다른 자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1) www.europarl.europa.eu/ERPS/Catalogue_EPRS_publications_2014-17.pdf

Ⅱ. 유럽의회조사처의 창설, 역할, 그리고 철학

유럽의회조사처는 2013년 5월 20일의 유럽의회 집행부 결정에 따라 2013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에 전면 운영되었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창설은 의회 사무국과 예산 위원회의 공동실무작업그룹에 의해 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종류의 지원에 대한 장점과 약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수행된 후에 이루어졌다. 공동실무작업그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잠재적 절감과 잠재적 강화에 대한 영역을 모두 식별해 내었다. 잠재적 강화의 분야 중에서, 의원들에게 '독립적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정밀 조사와 감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분석적 지원을 둘 다 강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및 미국의 의회조사서비스와 도서관을 상세히 비교한 결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모범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리부서를 설립하는 전반적인 목적은 기존의 특정 서비스를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가 새로운 집단연구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 및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EU와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EU 정책 사이클의 연속적인 단계에서 유럽 위원회와 다른 집행기관들을 조사하고 감독하기 위해 회원들과 위원회의 실질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야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서는 단일 서비스의 형태로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두 기구인 도서관(이전의 유럽의회기획관리실)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이전의 유럽의회내부정책실)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통합하였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구, 즉 전에는 의회가 어떤 규모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의원연구서비스실을 추가했다. 의원연구서비스실은 각 의원들에게 더 면밀한 맞춤형 브리핑보고서와 개별화된 조사를 제공하고 전체로서의 의원들을 위한 폭넓은 범위의 간행물들을 생산했다. 이 세 가지 주요 서비스들을 합치면, 다른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

능력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단일 서비스를 형성하게 된다.

집행국에 의해 규정된 유럽의회조사처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은 핵심원칙들을 반영한다.

- 맡은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 객관적, 권위적일 것
-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
-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맞추어 의원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회답할 것
- 의원과 보좌진을 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
- 모든 출판물과 서비스에 대하여 명료하고 단순한 브랜드를 확보할 것,
- 의원들에게 더 훌륭한 대면보고('in person' briefing)와 함께 보충적인 서면자료를 제공할 것

이러한 정신에서, 부서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내부전문가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뒷받침되는 종합적인 범위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원들과 위원회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기구로서의 의회의 효과와 영향력에 기여하게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서는 또한 EU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의회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연구의 주된 결과를 일반 대중들과 공유한다.

부서의 행정명칭은 유럽의회조사처이다. 약어 'EPRS'는 유럽의회조사서비스를 나타내고, 그 이름은 부서의 간행물, 웹페이지, 또는 다른 공공자료들에 사용할 수 있다.

조직적으로, 유럽의회조사처는 세 개의 '실'급 부서(directoraties)로 구성되어있다.

- 부서A - 의원연구서비스실
- 부서B - 도서관
- 부서C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

유럽의회조사처의 세 주요 실의 업무는 (i) 의원들을 위한 개별적 연구와 의원들 전체를 위한 간행물, (ii) 지식원에 대한 접근성, (iii) 집행부의 조사와 감독에 대한 의회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세 가지로 부서의 조직에 반영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유럽의회조사처는 '실'급 부서와 '과'급 부서(units)를 두고 있으며, 처장을 보좌하는 수평적 구조의 '전략협력과'(Strategy & Coordination Unit)와 '운영지원과'(Resources Unit)를 두고 있다.

Ⅲ.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업무

유럽의회조사처의 부서A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의 주요 업무는 모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의회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있는 분석과 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원연구서비스실은 다섯 개의 '과'로 조직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정책과(EPOL), 구조정책과(SPOL), 시민정책과(CPOL), 예산정책과(BPOL), 그리고 대외정책과(XPOL)로 이들은 의회행정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위원회 배치를 따르고 있다. 다섯 개 정책 과의 업무는 수평적 간행물관리와 편집부서에 의하여 지원받는데, 그것은 전체로서 하나의 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연구서비스실 내의 다섯 개의 정책 과는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책 분석가 및 정보 전문가의 업무를 토대로 한 EU 정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 조사, 분석 및 EU가 다루는 정책 분야의 개별 회원들의 특정 요청에 대한 대응, 특히 서면 및 직접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맞춤화되고 개인화된 브리핑보고서를 제공
- EU의 연속기간의 경과 시 EU 입법안에 관한 자동화되고 체계적인 분석을 포함하는 주요 EU 정책들과 이슈들에 관한 의원 전체를 위한 종합적 범위의 사전적이고 내용이 풍부하며 읽기 쉬운 간행물들
- 의회의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웹사이트 이용을 위한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온라인컨텐츠 기여

의원연구서비스는 2014년 6월 의회집행국에 의하여 채택된 상세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곳[2]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의원들을 개별적 및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누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다.

2) www.eprs.sso.ep.parl.union.eu/eprs/auth/en/members-research-service.html

1. 정책 전문성

유럽의회조사처 설계의 핵심 요소는 새로운 의원연구서비스실을 통해 모든 주요정책분야에 걸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의원들의 요청에 대응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모든 분석 간행물을 생성하여 의원전용 연구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들 하에 과거에 가능했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책 전문성이 직원들에게 부여되고 걸맞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모든 EU 정책 분야를 상세히 다루는 의원연구서비스 내에 정책 전문가 팀을 구성하는 주요 목표는 사무국과 예산당국이 예상한 바와 같이, 기존 직원의 재분배와 훈련, 그리고 추가 직원 채용을 통해 2013년부터 달성되어 왔다. 2017년 말 시점에는 의원연구서비스 내에 82명의 정책 분석가와 28명의 정보 전문가들이 있었고, 의원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유럽의회조사처가 설립된 2013년 10월과 비교하면, 구 도서관은 현재의 정책 분석가 역할에 대응되는 20명의 동료만 근무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비전문가였다. 의원연구서비스 내의 일부 직원은 특정한 정책책임 외에도, 연합 내에서 정책의 비교분석에 더 잘 참여하기 위해 개별 EU 회원국에 대해 국가별 책임을 부여 받았다.

현재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에서 정책책임 분야가 나눠져 일하고 있는 110명의 정책 분석가와 정보 전문가들의 목록은 이곳[3]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저러한 변화의 결과로써, 의원연구서비스의 결과물의 양과 질은 아래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다.

2. 개별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

유럽의회조사처가 창설되었을 때 예측한 대로,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의원 또는 보좌진의 연구 분석을 위해 대응해야하는 개별적 요청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

3) www.europarl.europa.eu/EPRS/Areas_of_expertise-DirA.pdf

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청은 2014년 6월 의회집행국에서 채택한 의원연구서비스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기밀로 취급된다.

- 해당 4년 동안 의원 또는 보좌진으로부터 연구 또는 분석을 위한 총 11,430건의 실질적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2014년 1,660건에서 2017년 월 평균 3,334건으로 증가하였고 기간 내내 월평균 2.4% 증가한 수치이다.
- 위원회 비서, 정책부서 및 정치단체와 같은 기타 의회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해당 4년 동안 2,131건의 실질적인 연구 및 분석 요청이 추가로 접수되었다. 2017년에는 477건의 요청이 있었고 연간 평균 533건이었다.
- 그러한 연구요청에 대한 답변의 길이는 짧게는 1페이지에서 길게는 30페이지에 이르고 평균적으로 5페이지 정도이며, 해당 4년 간 작성된 개별화된 브리핑보고서가 총 약 68,000페이지에 이른다.
-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받았던 13,561건의 연구요청 또는 분석 중에서, 11,802건 요청은 의원연구서비스실 자체적으로 답변하였고, 1,353건 요청은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의 도움으로, 393건 요청은 전략협력과의 도움으로, 13건 요청은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 의원으로부터 받은 특정비교요청은 총 4,200건의 추가하위요청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 최대 28명의 유럽의회조사처 국가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필요로 했다. 만일 하위요청들이 수 개의 다른 의원서비스의 보고과정에 들어가면서 총 수에 합산된다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답변된 수는 13,561건에서 17,761건으로 올라간다.
- 의원들의 핫라인을 통해 요청을 한 고유한 클라이언트 수의 평균은 2014년 1,000여 명에서 2017년 1,400여 명을 포함하여 2014-2017년 4년 동안 총 3,216명으로 증가했다.
-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의원 또는 보좌진들의 총 91%가 의원연구서비스실에 실질적인 조사 또는 분석을 요청했고, 이전 12개월 동안에는 78%의 의원들이 요청을 했다(의원연구서비스실에 조사 또는 분석을 요청한 의원 또는 보좌진들의 비율은 지난 유럽의회선거직후인 2014년 10

월 22%였고, 2015년 6월까지의 비율은 66%였다).

-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접수된 요청은 경제정책(27%)과 외부정책(22%)이 강조된 모든 EU정책영역과 관련이 있다. 시민정책이 18%, 구조정책은 15%, 예산정책은 4%였다. 주로 수평적이거나 더욱 복잡한 다른 정책들은 14%를 차지했다.
- 거의 3/4의 문의는 문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을 통하거나 전화 또는 도서관의 안내데스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 2014년 1월 이후 접수된 요청 중 약 55%의 요청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답변이 이루어졌고, 83%는 1주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졌다.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의원 또는 보좌진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기회를 개발했고, 이는 클라이언트 지향 접근법의 하나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3. 의원들을 위한 간행물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점점 더 많은 수의 출판물을 만들어 냈는데, 이 출판물은 모두 명확하고 접근가능하며 읽기 쉬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48개월 동안 총 2,805건의 간행물을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의 간행물의 수는 2014년 384건에서 2017년 677건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 의원연구서비스실에서 제작된 간행물은 EU 내의 모든 정책분야, 이슈, 입법을 다루려고 한다. 2017년에 다루어진 주제 중에는 유럽의 미래, 유로존 개혁, 이주, 안보, EU의 재정지원, 인접지역정책, 국제무역, 영국의 EU 탈퇴, 핵 군축, 사이버 보안, 허위정보의 이용증가가 있다.
- 2,805건의 간행물 중에서 80%(2,253건)는 인쇄물과 디지털형식으로 모두 제공되었으며, 20%(552건)는 온라인으로만 이용 가능했다.
-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제작된 의원연구서비스실 간행물들의

링크된 PDF리스트는 이곳[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모든 그러한 물리적 간행물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웹사이트(www.eprs.sso.ep.parl.union.eu), 유럽의회조사처 블로그(www.epthinktank.eu),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 앱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싱크탱크웹사이트(www.europarl.eu/thinktank)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전용 간행물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과 블로그에서 이용가능하다.
- 초기에,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의 프레젠테이션은 길이와 주제개요에 대한 12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요약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범주에 제공되는 매력적이고 새로운 형식으로 표준화되었다 : 한 두 페이지의 토픽요약을 제공하는 개관(At-a-glance) 보고서; 정책의 좀 더 세부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브리핑보고서(최대12페이지); 정책에 관한 훨씬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심층분석보고서(최대 36페이지)와 연구보고서(36페이지 이상)
- 또한 유용한 수치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이며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든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에는 인포그래픽 및 통계의 개선된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제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에서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에 사용되는 많은 인포그래픽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웨어하우스'가 1,200개의 차트, 표 및 기타 그래픽을 제공한다.[5] 약 200개의 지도를 싣고 있는 '지도 웨어하우스'도 이곳[6]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EU 및 국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 웨어하우스'도 이곳[7]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4년에서 2017년의 기간 내내,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의원들을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새로운 생산물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작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협조된 일련의 간행물들의 개발은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4) www.europarl.europa.eu/EPRS/MRS_catalogue_2014-2017.pdf
5) www.eprs.sso.ep.parl.union.eu/eprs/auth/en/GWH_Graphs.html
6) www.eprs.sso.ep.parl.union.eu/eprs/auth/en/GWH_Maps.html
7) www.eprs.sso.ep.parl.union.eu/eprs/auth/en/globalstat.html

그것은 더욱 활성화되고 다듬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일련의 EPRS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

(i) 모든 주요 EU정책 분야에 대한 심층적 분석(지금까지 110건 발행됨)

(ii) 모든 주요 입법 제안사항의 통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진행중인 법률'에 대한 브리핑보고서(지금까지 326건 발행됨)와 최근 '국제적 합의의 과정'에 대한 브리핑보고서로 보완된 시리즈(11건 발행됨)

(iii) 다년재정프레임워크(MMF) 하에서 특정한 소비프로그램을 분석하는 'EU예산은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관한 브리핑보고서(지금까지 38건 발행됨)

(iv) EU 또는 국제 정치학에서의 주요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논해보는 'Understanding..'에 관한 브리핑보고서(지금까지 38건 발행됨)

(v) 경제적 및 예산적 전망, 인구통계학적 전망, 평화 및 안보 조사, 지켜봐야할 10개의 이슈를 포함하는 EU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일련의 연간 간행물

(vi) 향후 EP 세션 비즈니스에 대한 '선정 메모'(plenary notes)를 요약하여 각 본 회의의 결과에 대해 작성한 'session roundups' 보고서(지금까지 총 500건 발행됨)

(vii)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선택된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Topical Digests'(지금까지 54건 발행됨)

4. 기타 혁신적 생산물과 서비스

의원연구서비스실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은 2016년 10월 이 기관의 웹사이트에 발표된 의회의 온라인 EU 'legislative train schedule'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럽의회조사처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이 혁신적이고 시각적인 도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출된 모든 중요한 입법발의안들의 세부적인 단계(출발부터 도착까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열차, 객차 및 철도 이미지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은

1,000페이지 이상의 분석을 나타내는 500개 이상의 객차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유럽의회선거에 앞서, 의원연구서비스실은 개별 시민을 위한 EU 정책의 실질적인 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일련의 짧은 노트를 준비하고 있다. 'EU delivery scorecard project' 또는 'Leistungsbilanz'로 알려진 이것은 국가, 지역 및 지역수준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양한 사회 또는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보여주는 2,000개 이상의 노트를 포함한다.

의원과 보좌진들이 유럽의회 외부에 있을 때, 그들이 간행물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의 한 부분으로, 2015년 중반에 일부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들에 대해 팟캐스트를 이용한 실험이 시작되었고, 특히 다가오는 본회의 주요 아이템들에 관한 'plenary 팟캐스트[8]', 다양한 장기간의 이슈에 관한 'policy 팟캐스트[9]', 과학기술분야의 변화와 발전의 의미를 살펴보는 '과학기술 팟캐스트[10]'와 관련된 실험이 시작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총 174개의 팟캐스트가 발행되었으며, 모두 의회웹사이트,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및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슈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을 이용하는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이 가이드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무역, 순환경제, 로봇공학, 이주 및 난민보호와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이슈들은 쌍방향적이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각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은 미니 웹사이트로, 사용자가 접근하는 분석의 심도를 조절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모든 유럽의회조사처의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은 여기[11]에서 접근할 수 있다.

유럽의회조사처 정책 분석가들이 핵무기 운용이나 순환경제와 같은 정책이슈를 대개는 '세 가지 핵심 질문' 형식으로 카메라에 간결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비디오브리핑'이 도입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럽의회조사처 미디어브리핑은 여기[12]에서 접근할 수 있다.

---

8) www.europarl.europa.eu/rss/podcast/eprs-plenary-podcast/or.xml
9) www.europarl.europa.eu/rss/podcast/eprs-policy-podcast/or.xml
10) www.europarl.europa.eu/rss/podcast/eprs-stoa-podcast/or.xml
11) 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infographics.html
12) www.youtube.com/playlist?list=PLPPfzoqPUImXsGDTQJUrOyFTxPTqHauja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와 유럽지역위원회(CoR)와의 의회역량공유합의에 따라 부여된 60명의 직원(또는 공석)에 대한 답례로 의원연구서비스실은 두 개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표적 조사연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합의에서 예측되었듯,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 180건의 연구가 생산되었다. 또한, 유럽의회조사처는 자문위원회 본회 회기와 행사에 앞서 자문위원회에 관련 간행물을 보고한다.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유럽의회조사처 내에 두 개의 다른 실뿐만 아니라 의회행정부 내의 다른 서비스들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다. 해당기간 동안 대내정책(IPOL), 대외정책(EXPO), 기획관리(PRES), 커뮤니케이션(COMM)부서들과 공동출판, 이벤트 및 교육 세션을 함께 수행하였다.

Ⅳ. 도서관의 업무

유럽의회조사처의 부서B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의 가장 눈에 띄는 역할은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을 운영하여 유럽의회의 물리적 소장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전적인 도서관의 기능은 1953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도서관은 의원과 직원들을 위해 수많은 구독기반 저널, 데이터베이스, 뉴스 및 기타 정보소스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성장하고 있는 지식원에 대한 디지털 및 온라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도서관은 의회의 축적된 역사기록보존소를 관리하고 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많은 시민들의 문의에 응답한다. 2016년 11월까지 의회문서의 공개와 기타 투명성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다. 비교법을 다루는 전문가부서가 2015년 9월 창설되었다. 도서관은 현재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1.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LIBS)은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거의 3,000개의 저널, 데이터베이스, 정보소스 뿐만 아니라 83,000권 이상의 도서, 32,000권의 전자책에

대한 물리적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고, 이러한 자료의 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회조사처 내에 도서관서비스의 설치 목적은 전체 부서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분석 및 연구 업무에 보다 더 가깝게 만들어 주고, 특히 의원연구서비스실과의 특정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비록 이전보다 도서관 핵심 기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2013년 75명과 비교하면 현재 27명으로 줄었지만, 생산성은 지난 4년간 상대적 및 절대적 관점에서 모두 증가 하였다(도서관 직원의 대부분이 새로운 의원연구서비스실로 옮겼고, 그곳에서 의원들로부터의 연구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체 의회를 위한 일반 간행물을 생산하고 있다).

아래 통계와 같이 높은 수의 참조요청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서 나타났듯이, 유럽의회조사처가 창설된 이후 의회커뮤니티가 지속적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유럽의회조사처 정책 토론회 개최 및 도서의 출시뿐만 아니라 정보소스 이용 직원의 강화된 훈련을 논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도서관열람실의 이용증가에 필적해 왔다.

의원과 직원들에게 의회커뮤니티에 대한 광범위한 첨단 디지털 자료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도서관의 디지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며, 항상 외부 및 광범위한 클라이언트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4월 의회 집행국이 통과시킨 새로운 '열린 디지털 도서관' 개념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는 이미 의원들과 유럽의회 직원들에게 약 100가지의 디지털구독 서비스, 특히 유럽 및 국가 뉴스 서비스(예를 들어 Agence Europe, AFP, DPA, Reuters, Financial Times)와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와 연구도구(예를 들어 Factiva, Nexis, Oxford Analytica)들을 제공한다. 신문, 잡지, 저널, 연감에 대한 700가지 이상의 물리적 구독 또한 제공된다.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은 의회 내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모바일기기로 신문과 저널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도서관의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괄 구독으로 보완되고 있다. 새로운 'PressReader' 앱은 전 세계의 7,000개 이상의 신문과 잡지에 그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BrowZine' 앱은 클라이언

트들이 현재 5,000개가 넘는 학술저널의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 도서관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의회 의뢰인으로부터 78,000개의 참고요청과 기타 유사 요청에 대응했다(2017년 18,000개).
- 2014년 총 4,900명의 의회 클라이언트들이 전자신문, 뉴스 에이전시 및 외부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고, 2017년에는 5,700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6천3백만의 히트(인터넷 파일 액세스를 나타내는 수치)를 기록했다.
- 해당 4년 동안 총 49,000권의 도서와 전자책이 대출되었다. 그 수는 2014년 9,500권에서 2017년 17,000권으로 증가했다(9,500권의 인쇄도서와 7,700권의 전자책). 대출할 수 있는 전자책의 수는 2014년 2,000권에서 2017년 32,000권으로 증가했다.
- 2014년 7월, 도서관은 브뤼셀, 룩셈부르크,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열람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스트리드 룰링 라운지에 연결되어 있는 알티에로 스피넬리 빌딩 1층에 소규모의 의원열람실[13]을 열었다. 2017년 9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열람실은 윈스턴처칠 빌딩의 더 눈에 띄는 장소로 이전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신문, 잡지, 유럽의회 간행물들을 제공한다.
- 특히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 의원, 그들의 사무실 및 광범위한 의회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원 제공이 지난 4년 동안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총 3,500명 이상의 개인(2017년 774명)이 540차례 이상의 교육 세션에 참여했다. 2017년 12월까지 388개 의원사무실 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이러한 종류의 인포세션에 참가하였다.

2014년 이후, 브뤼셀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 및 다른 도서관 시설들은 책 출간과 기타 행사뿐만 아니라 정책 이슈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에 훨씬 더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유럽의회조사처가 개최한 109개의 행사에 6,5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그 행사들에는 EU회원국과 전 세계의 다른 의회연구서비스 및 도서관들과의 모범사례의 교환 및 브리핑세션뿐만 아니라 유럽대학협회, EUISS, OECD, IMF와 같은 파트너 기

13) www.europarl.europa.eu/EPRS/AstridLullingReadingRoom.pdf

구들과 모든 의원 및 직원들에게의 개방적인 공동논의까지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도서관 열람실에서의 유럽의회조사처 행사에서 다뤘던 주제들로 인구통계학적 변화, 글로벌 트렌드, 국제경제, 경제 지배구조, 지역갈등, 안보과 방어, 이민, 교육, 더 나은 입법, 예산 정책, 제도변화, 민주적 재정, 유럽과 미국의 선거 등이 포함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유럽의회조사처 행사에서 90차례 이상 연설했다.

도서관 열람실은 또한 해당 4년간 동안 유럽의회 개별적 의원들이 조직한 69개 행사를 위한 장소로도 역할을 했다(2017년에는 22개 행사).

도서관의 온라인프로젝트인 '유럽에 관한 기억해야할 100권의 책'은 2014년 5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전후 유럽 통합의 형성과 이해에 중요한 텍스트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각 책의 요약과 저자에 관한 세부정보 외에도, 가능한 경우 그 책의 전체 텍스트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2015년 3월 브뤼셀의 도서관 열람실에서 의회 의장과 몇몇 살아있는 저자들이 참석한 주요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6년 10월 역사도서관이 주최한 100권의 책 전시회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렸다. 2017년부터, '100권의 책'은 현직 및 전직 유럽의회의원들이 쓴 새로운 도서와 나란히 브뤼셀도서관 열람실에서 물리적인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

2. 비교법도서관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초국가적 입법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인 비교법 분야의 역량 강화에 특히 주목하면서 도서관 자료의 개선된 프리젠테이션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반영하여 EU의 법률, 회원국가 및 국제적으로 동등한 민주적 관할권에 관한 의회의 지식과 전문지식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2015년 9월 소규모의 비교법도서관(COLL)이 설립되었다.

비교법도서관은 비교법분야에서의 연구와 분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입법, 판례법, 법적 원리의 방대한 참고자료들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열람실에서 주요 연회를 주최하고, 헌법재판소 관련 이슈부터 시

작해서 다른 비교법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발표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의회의 법률사무소 및 관련 외부 파트너, 특히 트리어에 있는 유럽법아카데미(ERA)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역사기록보존소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역사기록보존소(ARCH)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500만 건까지 운영되고 있는 의회의 공식 공공문서 및 기타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다. 역사기록보존소는 의회의 역사와 유럽 통합에 관한 연구자들을 돕고,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 역사 연구를 출판한다. 그리고 의회의 기록들과 제도로서의 의회역사연구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어 피렌체의 유럽대학연구소(EUI)에 있는 EU역사보관소와 new Alcide de Gasperi 센터와 함께 유럽통합의 역사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사도서관 열람실도 관리한다.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역사기록보존소는 30만개 이상의 전자파일들과 길이가 1,500미터에 달하는 종이파일을 처리했으며 10만개의 오디오테이프를 디지털화 하였다. 그리고 약 570미터의 자료가 정리되어 EU의 역사기록보존소로 옮겨졌다. 또한 역사문서들과 기타 정보에 대한 약 2,700건의 개별적 요청에 답하면서 25,000여 개의 문서를 제공했다.

2017년 역사기록보존소는 57.2GB의 전자파일들과 293미터의 종이자료들을 처리했고, 28,000개의 오디오테이프를 디지털화했다. 종이자료들 중에서 약 168미터가 정리되어 EU 역사기록보존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역사문서들과 기타 정보에 관한 약 600건의 개별적 요청에 답하면서 4,600개 이상의 문서를 제공했다.

역사기록보존소는 과거와 현재의 유럽의회의원들 개인 문서의 기탁을 반기며, 유럽의회조사처 창설 이후 기관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러한 문서들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역사기록보존소는 14명의 전 · 현직 의원들로부터 문서를 받았으며, 그것들을 보관하고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

2014년 이후, 역사기록보존소는 또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사를 강조하면서 유럽의회역사시리즈[14]와 유럽연합역사시리즈[15]라는 두 가지 시리즈로 출판물을 체계화시켰다. 2014년부터 2017년의 4년 동안 24개의 블로그포스팅, 10건의 기사, 7건의 브리핑보고서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권 역사에 관한 두 권, 보통선거시스템과 1976 유럽선거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8건의 연구를 출판했다.

역사기록보존소는 현재 유럽의회의 주요하고 다중적인 역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79년 6월의 첫 번째 직접선거 이후 시작되는 정치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대한 분석을 연구하고 출판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 두 번의 선출된 의회 임기(1979-89) 동안 유럽의회에 대한 세 개의 연구의 첫 세트가 곧 출판될 것이고, 이것은 직접 선출된 의회의 특징, 구성 및 문화, 지역사회의 제도적 및 헌법적 발전에 대한 의회의 역할, 유럽 단일시장의 완성도에 대한 유럽의회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내용을 추적 및 분석한다.

또한 기념일들과 기타 중요한 행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도 조직한다.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알티에로 스피넬리, 에밀리오 콜롬보, 사하로프 상, 연속적인 유럽선거 캠페인, 룩셈부르크에서의 유럽의회, ACP와 위원회 발전의 역사, '기억해야할 유럽에 관한 100권의 책' 프로젝트에 관한 전시회를 열었다. 2017년 10월과 11월에는 조약의 체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의 국회의사당에서 'Ever closer Union: 로마조약의 유산'이라는 순회 전시회를 열었다.

이와 동시에, 저자와 역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탁토론은 중앙유럽과 동유럽의 25년간의 민주적 변화, 유럽석탄 강철 커뮤니티(ECSC), 1976년 이후 보통 유럽선거시스템의 발전, 룩셈부르크에 있는 의회의 첫 번째 헤미사이클 토론, 유럽협력의 초기 형태에 관하여 개최되었다. 2017년에는 첫 두 번의 직접 선출된 유럽의회(1979-89)의 특징 및 문화와 당시 사회의 제도적 · 정책적 개발에 있어 유럽의회의 역할을 살피는 유럽의회역사토론회를 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회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역사를 제공하기

14) www.europarl.europa.eu/historicalarchives/en/publications/ep-history.html
15) www.europarl.europa.eu/historicalarchives/en/publications/eu-history.html

위해, 문서에 대한 손쉬운 온라인 접근과 그것들의 사용에 기초하여, 의회의 일상에서 역사기록보존소의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전직 의원들로부터 '구전 역사'의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2017년 11월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역사기록보존소의 새로운 웹사이트[16]가 2015년 3월 온라인에 개설되었으며, 의원들과 직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실용적인 조언이 포함된 새로운 인트라넷 사이트는 2015년 9월부터 운영되었다. 의회의 기록들을 디지털화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가 확고하게 진행 중이며, 이는 1952년 이후 의회 자료들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U기구의 자료로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2014년, 2015년, 2016년의 의회 역사기록보존소 연간보고서는 3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 기록들을 제공하며, 여기[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연간보고서는 곧 발간될 예정이다.

4. 대민회답과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민회답과(AskEP)은 의회와 EU문제에 관하여 기관 또는 의장에게 전달된 일반 대중의 정보 요청에 더 폭넓게 응답한다.

2014-2019 의회는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요청 수의 뚜렷한 증가를 목격했는데, 주로 시사적 이슈에 관한 'write-in' 캠페인에서 공동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였다. 물론, 대민회답과는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 또는 이메일에 공식적 언어로 답변했다.

2017년 대민회답과는 9,200건 이상의 개별 질의와 약 43,000개의 캠페인 질의에 답했다. 비교해보면, 2014년에는 시민으로부터 8,000개 이상의 개별 편지와 이메일과 조직화된 캠페인의 일환으로 2,500개의 질의에 답했다. 4년 동안 총 36,000건의 개별 질의와 196,000건의 캠페인 질의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이 4년 동안 대내정책 측면과 관련된 시민의 질의 43%, 제도문제에 관하여 31%, 대외이슈에 관하여 12%, 기타의 다른 이슈에 관하여는 14%였

16) www.europarl.europa.eu/historicalarchives/en/home.html
17) www.europarl.europa.eu/historicalarchives/en/publications/other-publications.html

다. 그러한 질의의 50%는 3일 이내에, 85%는 10일 이내에 답변되었다.

이와 동시에 의회자체 내에서 대민회답과의 업무확산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2015년 5월부터는 유럽의회의원 및 그 직원들이 구성원들과의 쉬운 문서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18]에서 'model answers'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340명 이상의 의원 또는 사무실로부터 160여 개 이상의 답변들이 광범위한 이슈를 커버하고 있다.

현재 약 6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다양한 'EP answers'는 의회 웹사이트[19]와 유럽의회조사처 블로그[20]에서 특별히 개발된 플랫폼인 AkEP.net에서 이용할 수 있다.

Ⅴ.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실의 업무

유럽의회조사처의 부서C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실(Directorate for Impact Assessment & European Added Value)은 입법의 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법적·정책적 사이클의 연속적 단계에서, EU차원의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와 감시를 실행하기 위해 유럽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한다. 이 실은 의회 발의안의 식별, 계량화 그리고 정당화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의 그들의 업무에서 의회 위원회에 시기적절하고 목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과 좀 더 넓은 목적을 위하여 대내정책부서(IPOL), 대외정책부서(EXPO)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 부서는 6개의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트렌드를 전망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EU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평가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실은 다양한 종류의 473건의 간행물을 생산했다(2017년 154건). 본 작업은 17개 의회위원회(20개 위원회 中)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전체

18) www.askepnet.ep.parl.union.eu/modans/
19) www.europarl.europa.eu/atyourservice/en/20150201PVL00027/Citizens-enquiries
20) epthinktank.eu/category/blog/ep-answers

위원회 또는 조정자에게 60회 이상 구두로 제공되었다.

입법 및 정책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의회의 참여와 행정기관의 감독강화에 대해 점점 증가하는 높은 선호도는 서비스를 통해 의회 위원회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강화에 반영되고 있다.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기존 작업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래서 위원회는 과거 한 가지 기준으로 EU 기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법적 선택사항을 보다 잘 분석하고, 이전 사후 분석을 기반으로 해당 기관의 결과를 검토 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1. 사전영향평가

유럽부가가치평가과(EAVA)는 EU 국가들이 공동행동을 취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공공재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분석하여 EU 국가들의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인 '비유럽비용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의 비용을 통해 EU가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한 잠재적 편익을 분석한다 ; 이 과는 의회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안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럽부가가치평가를 제공한다 ;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EU정책의 부가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 2014년에 유럽부가가치평가과는 비유럽비용보고서 4건 및 4건의 기타 간행물을 생산했다. 논의된 주제 중에는 교통과 관광뿐만 아니라 EU 단일시장의 5개 분야별 이슈가 있다.
- 2015년에는 해양법, 자원봉사, 승객의 권리 및 은행연합에 관한 4건의 비유럽비용보고서와 유럽의회선거법과 EU 내 법인세 정책에 관한 2건의 유럽부가가치평가 보고서를 생산했다.
- 2016년, 이 과는 단일시장, 유럽연구분야, 은행연합, 통합유럽연구분야, 조직범죄와 부패,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셍겐조약의 다양한 측면 등 7건의 비유럽비용보고서와 규칙, 법률, 기본권에 관한 EU체계, 국가 간 입양의 인정, 취약 성인의 보호, 교통사고의 공소시효, EU 내 법인세의 조정에 관한 5건의 유럽부가가치평가 보고서를 생산했다.
- 2017년, 이 과는 무역장벽과 형사소송체계 내의 절차적 권리와 감금조건에

관한 2건의 비유럽비용보고서와 국가 간 예술품과 문화재의 반환, 사회적 법령, 연대에 기반한 기업에 대한 2건의 유럽부가가치평가 보고서를 생산했다. 이와 동시에, 로밍에서 대기오염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8건의 '유럽 부가가치 행동'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4년간의 기간 동안, 11개의 의회위원회가 업무를 맡았다: 고용 및 사회복지 위원회; 환경, 보건, 및 식품 안전 위원회; 경제 및 재무 위원회; 국내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 헌법 위원회; 문화 교육 위원회; 교통 관광 위원회; 법무 위원회; 시민의 자유, 정의 내무에 관한 위원회; 국제무역에 관한 위원회; 산업, 연구, 및 에너지위원회

유럽부가가치평가과의 지난 유럽 선거를 앞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작업으로, 새로운 EU수준 발의안의 잠재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부문의 비유럽 비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Mapping the Cost of Non-Europe, 2014-19" 이라는 제목의 수평적 출판물로 함께 제공되었다.

2014년 3월에 발표된 이 텍스트의 초판은 10년에 걸쳐 유럽의회가 지원하는 정책발의안의 누적 잠재GDP증가분이 8천억 유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2014년 7월, 2015년 4월, 2017년 12월에 발간된 후속 판에서는 유럽의회조사처 연구 및 기타 뉴스 소스를 인용하여 점진적으로 이 숫자가 1조 7천 5백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담당하는 정책분야의 수는 4쇄에 걸쳐 25가지에서 34가지로 증가했다[21]. '매핑' 운동은 미디어, 학술, 정책입안서클에 대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2014년 유럽의회선거를 앞두고 열린 유럽위원회 선거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비슷한 분석이 2019년 선거에 앞두고 실시되고 있다.

사전영향평가과(IPMA)는 의회에 제출된 모든 위원회 법률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질을 분석하는 최초의 영향평가(IAs)를 수행하고, 새로운 입법발의안의 검토에 앞서 정기적으로 의회위원회에 최초평가 문서를 제공한다. 이후에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

21) 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7/603239/EPRS_STU(2017)603239_EN.pdf Mapping the Cost of Non-Europe, 2014-19, fourth edition, December 2017.

위원회 제안에 대한 대안·보완평가, 의회개선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다양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14년, 사전영향평가과는 31건의 EU집행위원회영향평가에 대한 최초평가, 2건의 세부평가, 3건의 대체·보완영향평가와 1건의 의회개선에 대한 영향평가를 생산했다. 2015년에는 13건의 최초평가와 4건의 개선안에 관한 1건의 영향평가를 생산했다. 2016년에는 36건의 최초평가와 7건의 개선안에 관한 1건의 영향평가를 생산했다. 2017년에는 42건의 최초평가, 10건의 개선안에 관한 2건의 영향평가, 1건의 대체영향평가를 생산했다.
- 해당 기간 동안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22]) 수행한 모든 초기 평가의 비교(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23],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24],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25])는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사전영향평가과는 다음의 13개 의회위원회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 외무위원회; 국제무역에 관한 위원회;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 국내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 환경, 보건, 및 식품 안전 위원회; 농업 및 농촌개발 위원회; 고용 및 사회복지 위원회; 어업 위원회; 법무 위원회; 시민의 자유, 정의 내무에 관한 위원회; 경제 및 재무 위원회; 문화 교육 위원회; 교통관광 위원회
- 다뤘던 주제로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새로운 식품, 대기의 질, 평등한 처우, 소비제품안전, 머니마켓펀드, 폐기물관리, 항공전략, 자본시장 통합, 유럽형사기록물, 에너지 연맹, 자본요구사항과 은행업무개혁패키지, 디지털단일시장, 유동성패키지, 사회보장 조정, 법률 지원, 제품판매 및 자료보호가 있다.

22) www.europarl.europa.eu/EPRS/IMPA_APIN_COMPENDIUM_%20July2013-June2014.pdf
23) www.europarl.europa.eu/EPRS/IMPA_APIN_Compendium_July2014-December2015.pdf
24) www.europarl.europa.eu/EPRS/IMPA_APIN_Compendium_2016.pdf
25) www.europarl.europa.eu/EPRS/IMPA_compendium_2017_FINAL.pdf

2. 사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분야에서의 의회위원회들에 대한 유럽의회조사처의 지원은 사후영향평가과(EVAL)에서 제공되는데, 이 과의 업무는 중요하고 새로운 생산물과 서비스를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이행이슈를 분석하는 의회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2014년 시작된 이 과의 업무에는 짧은 이행평가, 조금 더 긴 유럽이행평가 및 다양한 종류의 수평적 '롤링 체크리스트' 시리즈가 포함된다.

사후영향평가과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및 기타 기구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실행 중인 EU법률 및 정책의 구현 및 효과, EU법률의 채택흐름을 따른 EU 정책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관한 중앙 정보와 지원 서비스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핵심 참조자료를 제공하는 수평적 '롤링 체크리스트'는 의회위원회가 어떤 유형의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회위원회에 도움을 준다. 종종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롤링체크리스트는 현재 EU입법과 국제조약의 검토조항, 위원회가 맡은 업무의 평가, 유럽의회에서 위원회로의 요청 및 유럽회계감사원의 특별보고서에 관하여 작성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4건의 롤링체크리스트가 생산되었다(2017년에는 4건).
- 그러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새로운 발의안이 제시될 때마다 4에서 12페이지 정도의 짧은 현행 EU 법률 운영에 대한 이행평가가 위원회의 연간업무프로그램에 제시된다. 이러한 평가는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발의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관련 의회위원회에 전달된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6건의 이행평가가 15개 의회위원회를 위하여 생산되었다(2017년에는 26건).
- 구체적인 기존 EU 법률 또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유럽이행평가는 의회위원회가 기존 EU정책 또는 법률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행보고서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마다 작성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건의

유럽이행평가가 10개 유럽위원회를 위해 생산되었다(2017년에는 11건).

- 필요한 경우 이행 문제에 대한 다른 분석 또는 연구가 제공되었다. 이 중 10건의 다른 사후적 평가들이 있었으며(2017년에는 6건), 9건의 조치의 이행 브리핑보고서(2017년에는 5건)가 제공되었다.

3. 유럽연합이사회에 대한 조사

유럽정상회의감독과(ECOS)는 법률 또는 정부 간 합의를 기초로 한 다양한 책임뿐만 아니라 정상회의의 결론에 대한 약속에 관하여 위원회(EU 정상국가 또는 정부)의 의견표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이 과는 2010년 이후 주제별 유럽연합의원회의 결정 또는 정책선언의 롤링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출판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전과 이행의 정도를 추적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1년에 4회 업데이트되며, 현재 14번째 판이 나왔다.

또한 각 EU 이사회 회의에 앞서 브리핑 보고서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기 정상회의의 전망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각각 제공한다. 일상적 브리핑 외에도, 이 과는 또한 정치기관으로서의 유럽연합이사회의 운영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특정 정책 영역에서의 유럽연합이사회 활동을 평가한다.

유럽정상회의감독과가 운영되었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양한 종류의 84건의 간행물을 생산했고, 그 중 20건은 2017년에 생산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이사회 운영에 관한 일련의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사회와 위기관리, 유럽연합이사회와 공동안보 및 방어 정책(CSDP), 유럽의 미래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 EU정상회의에서의 아젠다 설정, 그리고 '유럽회의 의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다.

4. 예측

과학기술옵션평가과(STOA)는 과학 및 기술옵션평가를 수행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정책 문제와 트렌드를 분석한다. 이 과는 9개 의회위원회에서 지명한

유럽의회 25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옵션평가(STOA) 패널의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미래예측연구, 워크숍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2014년에는 STOA 패널은 '미래를 위한 STOA전략'을 승인했으며, 특히 더 큰 내부 연구를 통해 STOA 과정의 작업 및 산출이 과학적 선견지명과 관련된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다소 짧은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2014-2019 의회 임기동안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해진 문제에 대해 보다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옵션평가과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총 61건의 간행물(2014년에 9건, 2015년에 18건, 2016년에 10건, 2017년에 24건)을 생산했다. 이 모든 항목은 clickable PDF 목록[26] 또는 전용 STOA 웹사이트[27]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STOA패널이 수행 및 관리하는 주요 연구프로젝트에 포함된 주제 중에는 전자민주주의, 3D 프린팅, 보조기술, 폐기물관리, 로봇공학 윤리, 개도국에서의 ICT, 경제협력, 정밀농업, 유기농식품, 학습 및 교육 기술, 대중감시가 있다. 동시에 '만일 당신의 쇼핑물품이 드론으로 배달된다면 어떠할까?', '만일 에너지그리드가 자동차를 필요로 하면 어떠할까?' 또는 '만일 기술이 사회를 더 포괄적이 되도록 이끌었을 때 어떻게 될까?'와 같은 기술변화의 정책적 영향에 관한 일련의 짧은 간행물들이 새로운 장을 열었고, 매우 인기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2014년에서 2017년에는 53개의 STOA 행사를 조직하여, (이 보고서 앞부분에서 언급한 유럽의회조사처 전체 이벤트와 더불어) 총 6,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를 유치하였다. 그 중 주요한 국제적 과학자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한 4차례의 매우 성공적인 STOA 연례 강연이 있었다. 2014년부터 MEP-Scientist Pairing Scheme은 의원과 과학자가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학계와 공공정책 사이의 긴밀한 링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65명의 유럽의회의원과 65명의 과학자를 불러 모았다.

2017년 말, STOA패널은 새로운 유럽과학-미디어허브의 설립을 후원했다. 목

26) www.europarl.europa.eu/EPRS/Catalogue_DirC_publications_2014-17.pdf
27) www.europarl.europa.eu/stoa/

적은 의원, 과학계, 언론인 간의 보다 효과적인 대화, 특히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나 이슈와 관련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분야에서 토론, 네트워킹, 훈련 및 정보교환을 촉진시킬 것이다. 허브는 2018년 중에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STOA연간보고서는 여기서[28] 이용 할 수 있으며, 2017년 STOA연간보고서도 곧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5월에 설립된 글로벌트렌드과(TREN)는 EU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장기 글로벌트렌드, 특히 국제경제, 사회 및 정치적 환경변화를 식별, 추적 및 분석하고자한다. 이 과는 브리핑보고서를 출판하고 세미나를 조직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그러한 트렌드와 잠재적인 정책적 영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간행물에는 EU에 대한 잠재적 중요도 변화를 분석하는 Global Trendometer[29]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럽전략 및 정책 분석 시스템(ESPAS)로 알려진 세계적 트렌드에 대한 다른 EU기관과의 행정적 수준의 대화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외부 기관, 특히 싱크탱크와 대학과의 폭넓은 접촉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 매년 가을, 글로벌트렌드과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자체 싱크탱크인 유럽정치전략센터(EPSC)와 함께 매년 열리는 ESPA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세 차례 ESPAS 컨퍼런스는 2030년까지의 글로벌트렌드에 초점을 두면서,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정치혁명을 살펴본다.

해당 기간을 다루는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분야실의 유럽의회 업무에 대한 세 가지 활동보고서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30],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31],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32],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33]로

28) www.europarl.europa.eu/stoa/en/publications/annual-reports
29) 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6/573301/EPRS_STU(2016)573301_EN.pdf and 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7/603253/EPRS_STU(2017)603253_EN.pdf
30) www.europarl.europa.eu/EPRS/IA-EAV-Activity_Report-July_2014-December_2015.pdf
31) www.europarl.europa.eu/EPRS/IA-EAV-Activity_Report-July_2014-December_2015.pdf
32) www.europarl.europa.eu/EPRS/IA_EAV_Activity_Report_2016_final.pdf
33) www.europarl.europa.eu/EPRS/EPRS_615.642_IA-EAV-Activity_Report_2017.pdf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실의 모든 간행물들에 대한 접속 가능한 PDF 리스트는 여기[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물리적 간행물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웹사이트(www.eprs.sso.ep.parl.union.eu), 유럽의회조사처 블로그(www.epthinktank.eu),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 앱(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이용가능)뿐만 아니라 의회의 싱크탱크 인트라넷 웹사이트(www.europarl.eu/thinktank)에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전용 간행물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과 블로그에서 이용가능하다.

Ⅵ. 유럽의회조사처의 광범위한 서비스

유럽의회조사처 전반에 걸친 일련의 서비스(cross-cutting ERPS-wide) 개발은 2013년 11월 새로운 실의 성공적인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 그 서비스의 급속한 증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모든 의원과 그 직원들이 모든 관련 유럽의회조사처 생산물과 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전용 핫라인의 제공
- 조직의 중심에 있는 전담팀이 지지하는 유럽의회조사처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의식 있는 '클라이언트 니즈' 접근방식의 추구
- 다양한 전자 플랫폼 상 유럽의회조사처 존재의 점진적 확장 및 심화

1. 의원핫라인

유럽의회(MEPs)의 모든 회원과 그 직원들에게 의원연구서비스실과 도서관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원핫라인은 유럽의회조사처 창설 즉시 설립되었다.

의원핫라인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전용 질의양식

34) www.europarl.europa.eu/EPRS/Catalogue_DirC_publications_2014-17.pdf

이 있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질의를 위한 이메일 주소(eprs@europarl.europa.eu)를 통해, 유럽의회내선번호 88100과 의회 외부에서는 00 322 284 8100 전화로, 도서관열람실 안내데스크에서는 직원대면으로, 유럽의회내선번호 44990 팩스로 운영된다. 목표는 3시간 이내에 모든 질의에 초기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원핫라인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럽의회조사처는 의원과 직원들이 제출한 요청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질의관리시스템(EMS)을 대폭 강화하였다. 새로운 첨단 기능을 의회 자체 시스템으로 가져오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주요의원연구서비스와 도서관에서 그러한 질의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2. 클라이언트 니즈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의 개발 범위, 깊이, 이용가능성은 의원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집중되어 왔다. 새로운 의회임기가 시작할 때, '웰컴 데스크'와 개별화된 웰컴팩이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의원과 그 직원들 사이에 유럽의회조사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의 전담 클라이언트니즈팀을 영구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브리핑 방문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에게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거의 667명(또는 89%)의 의원들 또는 그들의 사무실은 유럽의회조사처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브리핑 방문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 297명(또는 40%) 이상의 의원들 또는 그들의 사무실이 2017년 중에 브리핑을 받았다.

2017년 말까지, 774명 이상의 의원(99%)들이 뉴스와이어와 기타 시사자료를 포함하여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스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196명 이상의 의원들과 그들의 사무실(약 26%)이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이 출판되자마자 그것들에 대한 자동알림을 구독하고 있었다. 유럽의회조사처 자동알림 설정방법 가이드는 여기[35]에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니즈팀은 유럽의회 기관, 개별 의원 및 정치단체에 의해 조직된 청문회, 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 같은 다양한 종류의 490회 이상의 의회 회의에서 5만 건 이상의 관련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의 배포하도록 보장하였다. 이러한 행사 중에 일부에서 유럽의회조사처 정책분석가들이 토론에서 그들의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초청되었다.

3. 전자플랫폼의 현재

인트라넷 및 인터넷 기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유럽의회조사처 생산물의 유용성이 향상되었으며, 그 부서는 모바일 이용과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럽의회조사처 생산물의 의도된 확산을 기하고 있다.

<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의 이용 >

- 2014년에 다양하며 향상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가 출시되었다. 이 사이트는 2014년 140만 건의 페이지뷰를 이끌어내었고, 2015년 190만 건, 2016년 160만 건 페이지뷰, 2017년 160만 건을 돌파했다(해당 기간 동안 총 640만 건의 페이지뷰).
- 대다수의 유럽의회커뮤니티는 연중 어느 시점에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각각 9,000명 이상의 독보적인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용자가 있었으며, 해마다 한 달 동안 평균 2,300명 이상이 이 인트라넷을 사용하였다. 2017년 사용자에는 428명의 유럽의회의원과 거의 1,500명가량의 보좌진을 포함되었다.
- 4년 동안 약 99%의 의원들과 직원들이 의회 인트라넷상의 유럽의회조사처 자료 또는 출처에 접근하였다.
- 다양한 유럽의회조사처 전자 플랫폼은 2014년에 총 559건의 새로운 간행물

35) www.europarl.europa.eu/EPRS/Alerts_blog_TT_intranet-A4.pdf

들을 실었고, 그 중 306건은 물리적 및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며, 263건은 온라인 전용이었다. 2015년에는 995건의 새로운 간행물이 있었고, 그 중 705건이 물리적, 디지털 형태로 모두 제공되었으며, 290건은 온라인 전용이었다. 2016년에는 1,154건의 새로운 간행물이 나왔고, 그 중 906건은 물리적, 디지털 모두 이용 가능하였고, 248건은 온라인 전용이었다. 2017년에는 1,057건의 새로운 간행물이 나왔고, 그 중 843건은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고, 214건은 온라인 전용이다.

- 해당 4년 동안 유럽의회조사처는 총 3,700건 이상의 간행물을 제작했으며, 그 중 2,700건 이상이 물리적 및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었으며, 1,000건 이상은 온라인 출판물만 제작하였다.
- 의원들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에서 사용된 1,400개의 다운로드 가능한 차트, 표, 지도 및 기타 인포그래픽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사이트와 블로그에 새로운 그래픽 및 지도 웨어하우스가 구축되었다.

<유럽의회 '싱크탱크' 인터넷 사이트와 유럽의회조사처 블로그의 이용>

- 유럽의회조사처에 의해 조정되며 '싱크탱크'라고 알려져 있는 대중을 위해 업데이트된 의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2014년 8월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이트에는 모든 유럽의회조사처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4개월 동안 총 150,600건의 페이지뷰(월 평균 37,600건)를 기록했고, 총 65,300명의 방문자가 집계되었다. 2015년 싱크탱크는 60만 건의 페이지뷰(월 평균 5만 건)를 끌어들였고, 총 235,000명의 방문자가 집계되었다. 2016년에는 873,000건의 페이지뷰와 총 325,955명의 방문자, 2017년에는 1,146,000건의 페이지뷰와 1,027,000명을 넘는 방문자가 집계되었다.
- 게다가 2014년 한 해 동안, 약 25만 명의 사용자들이 유럽의회조사처 블로그를 방문했다. 이 블로그는 500건 이상의 게시물을 포스팅을 했고 약 55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37만 명의 개별 사용자, 470건의

게시물, 75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33만 명의 사용자, 509건의 포스팅, 66만 건의 페이지뷰를, 2017년에는 295,000명의 사용자, 514건의 포스팅 및 609,000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2014년 가을, 위원회 지정 집행위원회위원지명 청문회에서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연계 간행물 한 세트가 12만 5천 건 가량 보여졌다.

- 유럽의회조사처는 링크드인(LinkedIn),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핀터레스트(Pinterest) 계정들을 통해 소셜미디어에도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더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유럽의회조사처 팔로워는 2014년 1월 2,000명에서 2017년 12월 219명의 의원들을 포함하여 거의 18,560명으로 늘어났고, 유튜브의 유럽의회조사처 페이지는 팟캐스트, 지정된 유럽의회조사처 행사들의 비디오 및 특정 출판물의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336명의 의원들이 소셜미디어 통신에서 유럽의회조사처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모든 물리적 간행물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www.eprs.sso.ep.parl.union.eu), 유럽의회조사처 블로그(www.epthinktank.eu) 및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 앱 뿐만 아니라 의회싱크탱크 인터넷사이트(www.europarl.eu/thinktank)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전용 간행물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과 블로그에서 이용가능하다.

4. 수평적 지원 - 자원, 전략 및 협력

앞에서 살펴본 세 실의 모든 활동 중 이러한 유럽의회조사처 전반의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원과 전략 및 협력을 위한 두 개의 수평적 과의 기여로 뒷받침되었다.

운영지원과(RESU)는 세 가지 서비스가 각각 그들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서의 인력과 재정 및 정보기술소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또한 지역재산관리와 안보이슈를 관할한다. 이 과는 공동훈련프로젝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의회행정부 내의 다른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운영지원과는 해당 4년 동안 성공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였다. 직원 수는 2013년 11월 214명에서 2015년 12월 327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2017년에는 12월 310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부서의 등장 후 첫 2년 동안 직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다음으로부터의 결과이다: (i) 2014년 2월 의회와 2개의 자문 위원회 사이에 서명된 공동협력합의의 결과로 자문위원회 직원 60명이 유럽의회조사처로 옮겼다; (ii) 예산 당국에 의해 내부적으로 유럽의회의 지출 우선순위를 재분배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40명의 계약직 연구자들의 모집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의회의 예산중립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운영지원과는 자금의 최적의 가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부서에 대한 조달과 재정절차의 조화를 확보해왔다. 재정서비스는 4년간 총 거의 3,000건(운영단위)의 파일을 검증하였다.

2015년부터 부서를 위한 예산배정의 많은 부분들이 명확성을 위해 유럽의회 연간예산이 단일한 라인(3210라인)으로 재편성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용이해졌다. 비슷한 기준으로 유럽의회조사처 부서에 다양한 라인에서 배정된 총 예산은 2014년에 903만 유로, 2015년에는 928만 유로, 2016년에는 850만 유로였다.

유럽의회조사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뚜렷한 유형의 지출을 맡고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반 도서관서비스, 구독, 데이터베이스 및 다양한 종류의 기록보관지원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대한 정보기술지원(IT)도 포함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7년 총 유럽의회조사처 예산 850만 유로의 74%인 630만 유로였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히 사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유럽부가가치 및 과학기술옵션평가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적으로 위임된 연구나 전문지식을 구매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다. 또한 파트너 단체와의 세미나개최 및 협력과 유럽의회조사처의 간행물 및 기타 생산물의 기술적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의 구매를 포함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의 예산은 2017년 총 유럽의회조사처 예산 850만 유로의 26%에 해당하는 220만 유로에 해당한다.

전략협력과(SACU)는 중앙의 의원핫라인 및 클라이언트니즈팀을 통해 의원에

게 유럽의회조사처서비스의 전반적인 제공을 조정한다. 그것은 부서의 활동들을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과 블로그 및 유럽의회싱크탱크 인터넷 웹페이지를 조정하여 협력을 포함하는 대내적 및 대외적 청중에게 전달한다.

전략협력과는 국가의회연구서비스와 도서관을 총괄하는 부서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원, 연락, 대화를 감독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의 Bundestag, 영국의 House of Commons, 프랑스와 이태리의 Senates,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House of Representatives, 헝가리의 National Assembly, 덴마크의 Folketing, 에스토니아의 Riigikogu, 라트비아의 Saeima, 및 그리스의 Vouli ton Ellinon을 포함하는 국가의회서비스로부터 70차례 방문이 있었다. 또한 미국 의회조사국과, 콜롬비아,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일본, 요르단, 몰도바,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한국 및 범아프리카 의회들로의 방문도 있었다. 2017년에는 유럽전역의 의원연구서비스실 및 도서관의 연례회의를 유럽의회조사및문서센터(ECPRD)의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전략협력과는 또한 관련 싱크탱크, 대학, 국제단체의 연구부서 및 유럽대학협회, OECD, IMF와 같은 기타 기구들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촉진시키고, 공동회의, 토론 및 다른 행사들을 함께 개최한다.

유럽의회조사처는 친환경행정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의회행정 전반에 대해 동의한 다년 EMAS 목표에서 정한 환경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직원들의 업무에 소비되는 CO2 소비량은 1인당 평균 CO2 소비량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내에 네트워크 프린트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 용지의 사용이 줄었으며,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 사이에 문서이동에 사용되는 트렁크의 양을 대단히 많이 감소시켰다.

유럽의회조사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한 결과지표를 모니터 한다: (i) 연구, 분석 및 지식소스 분야에서, 모든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생산물과 서비스의 제공하고, (ii) 생산물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 적절한 품질 기준에 의해 지원되는지를 보증하며, (iii) 클라이언트 지향적이고, (iv)모든 업무가 시의적절하여야 한다. 2017년 초부터, 유럽의회조사처는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그룹별 관심

시간'을 주요지표로 모니터한다. 이것은 10개의 하위지표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복합지수에서 함께 제공된다. 관심시간은 2016년과 비교하여 100%에서 121%로 21%증가했다.

전반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첫 4년간의 운영 동안,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의회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점점 더 정교한 생산물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EU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출된 주요기관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주요 입법과 감독 역할을 수행하였다. 새 부서의 기여는 이 보고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생산물과 서비스의 깊이, 범위, 품질 및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위원회, 기관 전체를 위해 의원연구서비스실 및 사내 싱크탱크로서 가장 높은 세계적 기준에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유럽의회조사처는 2014-2019년 남은 임기동안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EU 기관으로서의 지식을 통해 유럽의회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Anthony Teasdale
유럽의회조사처장(Director General of EPRS)

2018년 6월